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성지순례 소감문

구룡본당 이영숙 카타리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전 해 천주교에 입교한 나는 미사 전 기도로 “최양업 신부님 시복 시성 기도문”을 접하게 되었다. 영세 전 예비신자였지만 비신자인 남편과 함께 ‘천주교 성지 순례’ 여행을 해보기로 하였다. 안내 책자도 없이 시작한 천주교 순례길, 일반 성터를 성지로 알고 찾아간 적도 있었다.

믿음 생활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걸까? 본당 미사와 순례지에서의 미사 참례 횟수가 늘어나며 나에게는 신앙심이 커졌고, 남편에게는 천주교에 관한 관심이 커져 갔다. 남편은 성지 곳곳 봉사자들의 손길에 대하여 많은 감동을 받는다.

청양 다락골 성지 마을 입구에서부터 나는 천상의 향내를 맡았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근처의 수녀원에서 나는 것도 같았고 산의 들꽃 향기도 같았지만 난 천상에서 있을 법한 거룩한 향 내음으로 그리워한다. 코로나로 성당 문은 닫혀 있었다.

하느님께서 계속 나를 찾으셨고 나는 드디어 사랑에 응답하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은 하였지만 나는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모를 때였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만 느껴지는 양업 신부님의 행적만을 쫓으며 나는 주님께 물었다.

아, 불쌍한 최양업 신부님

신앙이 무엇이길래 할아버지는 집안 장손인 신부님을, 부모님은 그 아까운 맏아들을 주님께 바쳤을까? 왜 온 가족이 순교할 때까지 놔두시고 동생들은 거지 되고, 훗날 머나먼 타국에서 공부하시며 양업 신부님은 고국 소식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계속 하셨단 말인가?

전국의 167곳 성지 순례를 모두 마친 후 남편은 말했다.

“도대체 신앙이 무어야?” 나는 그저 웃는다. “한번 가져보세요.”

전국 곳곳에 있는 순교성지에서 느꼈던 마음은 떨림이다. 순교터에 서면 두려움이 먼저 느껴진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도저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에 떠오르지 않는다.

커다란 돌저귀들, 곳곳에 형구들, 망나니들의 칼 춤, 피바다가 연상되는 순간 진저리가 쳐지며 하늘은 안 보이고 눈을 질끈 감게 된다.

이를 바라보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 그저 십자 성호만 그었을 조선 천주교인들을 그려볼 뿐, 나도 십자 성호를 긋는다.

그러나 순교 터에서 만난 성인들은 눈물은커녕 평화로움 그 자체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셨다 한다.

“십자 성호를 그으며” “들어가네. 들어가네. 천국으로”

“하느님 나 이제 천국에 과거 급제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인들은 배교를 강요하는 나쁜 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거룩한 순교를 택하셨다고 한다. 아멘.

성당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나 이영숙은 죽고 카타리나라는 본명도 받았다. 영성체 모시는 순례길이 거둬지며 내 신앙의 싹도 새싹에서 가지가 굵어지고 곁가지에 새잎이 나면서 튼튼해져 갔다.

수녀님의 도움으로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다. 함께하는 팀원도 생겼다.

무겁게 느껴졌었던 성지 순교 터에서 기쁨의 기도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은 바로 부활 터가 아닐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거룩하게 들어 올려진 빛의 터가 아닌가? 이런 기특한 생각이 들면 아, 하느님을 뵈러 하늘을 우러르게 된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된다. 이분들의 증거로 나 카타리나가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승훈 베드로님이 영세 1호자 이시다. 200여년이 훌쩍 넘어 영세받은 새 신자 카타리나가 또한 주님을 증거 해야지, 이런 당당함이 솟는다.

요기 하러 들어간 식당 주인에게 눈치 없이 말한다. ‘멀리서 천주교 성지 순례 왔노라. 이 옆이 천주교 성지인데 신자 아니시어도 가보시라고, 그냥 좋다고, 성당 안에도 한 번 들어가 보시라고’ ‘네, 그러지요.’라며 좋아들 하신다. 골라 들어간 식당이나 마켓에는 신자분도 계신다.

청주 선교사목국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준비된 책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길을 따라 걷다.” 책자를 참고로 하여 떠났던 순례길에서 나 자신이 많이 성숙해졌음에 하느님께 감사 찬미드린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여 전국에서 뿔아 유학시킨 우리 양업 신부님,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무장되신 분, 두려움 없이 하느님께 순명으로 응답하고 유학길에 오르신 분, 육로로 해로로 다니신 그 길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걸었다. 급하게 달리지도 들뜨지도 않았다.

배티 성지에 가면 최양업 신부님께서 쓰신 편지의 필체를 통해 신부님의 인품을 나는 감히 느껴본다. 너무나도 고상하시고 고결하시고 거룩하시다. 굳건하다. 생사를 함

깨하며 공부한 김대건 안드레아의 순교 소식, 또한 피눈물을 뿌려야만 했을 조부모, 부모님의 몰살 소식과 혈육들의 난사당한 소식을 이역 만리 마카오에서 들었을 때 신부님께서 저의 정신이셨을까 싶지만 신부님의 필체에는 흔들림이 없다.

침착함과 이성을 잃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배우고 싶다.

조선으로의 귀국길 폭풍으로 난파되어 신시도에 머무르셨던 한 달여, 눈앞의 고국 땅을 코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조선인 신자들을 향한 양업 신부님의 신자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본당 신부님께도 잠깐이지만 위하여 기도드리게 된다.

최양업 신부님께서도 기도 외에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 중에 하느님께 매달리시며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을 것 같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께서서는 진이 빠져 돌아가셨다. 진이 빠지도록 나 카타리나는 기도해 보았는가?

고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분을 삼키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차쿠에서 6개월여 사목 생활을 하신 뒤 천신만고 끝에 들어오신 조선 땅에서 양업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능력 이상으로 조선의 팔도를 다니시며 양들을 돌보셨다.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양업 신부님께 영세받은 8명이나 되는 분들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셨다. 그 소식을 들으셨을 양업 신부님은 지쳐 쓰러지셨을까?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향해 기도드리신 후 또 일어나셨을 것이다.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을 양들, 순례 중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다. 어느 효자는 병든 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 밤길을 걸어 신부님께 모시고 오는 정성도 있었다고...

파란 눈의 신부님만 계시던 때 조선 신앙공동체에서 내 나라 양업 신부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초기 신앙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양업 신부님은 행복하셨다. 눈이 반짝반짝 기다리는 신자들을 그리면서 걷고 또 걸으셨을 것이다. 피곤함과 힘듦은 저리가라.

쉬엄 없이 걷고 또 기도하고 걷고 그리하여 땀의 순교자가 되셨다.

다시 찾은 신부님 탄생지 옆 청양 다락골 성지,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내 오감으로는 형언할 수 없었던 예전 향내만 찾아 나는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

성당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카타리나야 왔느냐?

나 여기 있다. 봐라. 그곳에는 양팔이 잘려 나가신 예수님이 계셨다. 피가 솟구치는 설움에 눈물이 펄펄 났다. 성당 나오고 일주일 뒤 나는 어깨 수술을 했었다. 몹시 아팠었다. 내 육신을 고쳐주신다며 나는 좋아했었다.

양업 신부님께서 문경진안리 성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성혈, 성혈” 단 두 마디. 양업 신부님께서 분명히 보셨을 예수님의 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성혈!

불다 못해 불탔을 예수님의 성혈! 주님, 제 영혼을 불태우소서.

청도 구룡 성지로 가는 길은 높고 험했다.

도착하니 수원 교구에서 오신 자매님 네 분이 낭랑하게 ‘최양업 신부님 시복 시성 기도문’을 막 시작하고 계셨다. 울컥하는 마음도 잠시 함께 기도문을 바치고 그분들과 헤어져 성당 안에 들어선 나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청주 교구에서만 열심히 했던 “최양업 신부님 시복 시성 기도문” 바치기가 전국에서 함께 드린다 생각하니 힘이 났다.

그리하여 전 세계 천주인들이 한날한시 조선인 최양업 신부님 날에 미사 참례하여 양업 신부님을 공부하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인생의 황금기인 60대 후반인 나는 영세 받고 천주교인으로 거듭났고 영세 받은 지 3년이 지나는 오는 9월 20일 시몬 주교님으로부터 견진성사를 받는 영광을 앞두고 있다. 평일인데도 200여명이 모여 미사를 드리는 인천 성모당 성지에서 미사에 참례하며 167곳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길 확인 도장란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며 나의 순례 여정은 일단락 지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라 해도 과찬을 나이 40세에 양업 신부님은 돌아가셨다.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간절히 양업 신부님의 시성 되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올린다.

순례 여정에 진심으로 함께 해준 남편 서민하님께 감사한다. 나 카타리나가 모신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져서 성지 순례길이 아닌 성당 가는 길에 두 손 잡고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성가정을 이뤄주시라는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 주십사 순례길에 늘 함께하신 성모님께 기도 올린다.

과거 속에 계신 양업 신부님과 함께 한 순례길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이다.

나 카타리나가 쓴 이 체험 수기가 나는 감추시고 하느님의 이름만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빈다.